

## David Naugle “세계관”(개념의 역사)에 대한 분석과 비판과 대안 — M. Heidegger의 시간성(Zeitlichkeit) 중심으로 —

조종현 (Sierra Leone의 RTS객원교수, 한국기독교철학회(SCPK)이사)

### 서론

최근에 “한국 기독교 철학회”(SCPK)와 “키에르케고어 학회”(S.K.S.)가 연합하여 학술회를 공동으로 여러 번 개최하여 기독교 관점에서 학문적인 공동문제에 대한 밀도 있는 학문적인 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구성적인 입장에서는 하이데거와 키르케고어와의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충돌”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다. 이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다음 달에도 “키에르케고어와 하이데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석학초청 강연회를 가진다.

얼마 전에 화란 개혁신교회(31개조의 교단)의 수장이었던 신학자요 목사인 클라스 스킨더(Klass Schider, 1890-1952)가 출판한 “그리스도와 문화”(Christus en Cultuur)가 번역되고 출판되어 각 도시에서 북 카페를 가졌고 많은 청년 독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Abrham Kuyper의 사상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란 많은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클라스 스킨더와 헤르만 도이벨트와의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1937-)의 1982년에 출판된 “주체의 이론”(Theory of the Subject), “진리를 향한 주체”(a Subject to Truth)를 통해 지금 까지 내려오는 전통과 다른 범주를 세우며 다시 인간의 자율적 인성의 주체로 회기를 위해 노력한다. 즉 최근 나온 “바울과 현대철학”에서 알랭 바디우의 “부활의 사건과 새로운 주체”와 1988년에 출판된 “존재와 사건”(Being and Event)과 그리고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1942-)의 “바울의 시간 이해와 분할적인 주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보다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과 구조로서 D. Naugle이 “신학적인 유익”이라는 항목에서와 같이 “세계관은 통일되고 일관되며 통전적인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적인 기독교 이해를 위한 촉매”로서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시점에 시의적절 하게 David Naugle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가 번역 출판되어 기독교계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계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차제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즉 올바른 세계관 발전을 위해서 상호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본서에 대한 분석과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 I.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D. Naugle의 세계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자는 이사야 40:31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

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 고하는 기호학적인 입장의 말씀내용에서 본서를 “독수리(Eagle)”의 모양형태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겔 17:3, 렘49:22),

한국 하이데거 철학회의 수장이신 강 학순 교수의 책 “시간의 지평에서 존재를 논하다”의 제1장 “부엉이와 독수리”에서 강 교수는 철학의 성격을 통상 “미네르바(Minerva)의 부엉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고, 부엉이는 날이 저문 뒤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영물로써, 옛날부터 철학은 지혜의 여신의 손에 앉아 있는 부엉이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소 광희교수의 “자연 존재론: 자연과학과 진리의 문제”를 인용하면서 철학은 인간의 내일의 삶과 문명에 대해서 예리하게 예견하기도 해야 하기에 철학은 독수리의 형안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강 교수는 인용하였다.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날카롭게 관찰하는 부엉이의 눈과 높은 창공에서도 지상과 수중의 작은 노획물을 꿰뚫어 보는 독수리의 형안이 철학적 성찰의 지혜라고 하였다.

I. Kant는 “순수이성비판” 의 “초월적 변증론”에서 플라톤의 이성의 욕구를 통한 사유의 형태를 비둘기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필자도 노글의 세계관의 책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분해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의 중심은 몸체인 철학사의 구분과 그 사상의 본질을 구성적 차원에서 도형적인 그림을 제시 하려고 한다.

### 1. 머리(번대)

본서의 제1-2장에서는 “개신교 복음주의권의 초기 세계관의 사상가”라는 제목과 부제로 “세계관의 경이”로 제1장에서는 개신교의 영역으로 6명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배정되었는데 1. 제임스 오어(James Orr,1770-1816) 2. 고든 클라크(Gordon H. Clark,1902-1986)과 헨리(Carl F. H. Henry, 1913-2003) 3.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1837-1920) 4. 헤르만 도이베르트(Herman Dooyeweerd,1894-1977) 5.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1912-1984), 그리고 2장에서는 1.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배정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신교 영역에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1895-1987)과 2장에서는 “영국 성공회” (Anglicanism, Episcopal Church)가 첨가 되었다면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더 좋은 그림이 될 것 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 2. 우측날개

우측 날개 쪽에는 제 7장으로서 제목이 “세계관의 학제적 역사”(자연과학)편을 배정하였는데, 1.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1891-1976) 2. 토마스 쿤(Thomas Kuhn,1922-1996)이 배정 되었다. 근대철학과 현대철학의 분기점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고 양자역학의 창시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K. Heisenberg,1901-1976)인데 여기에 첨가 되어야했다.

### 3. 좌측날개

본서에서 제8장에는 사회과학을 배정하고 3가지 과학영역으로 분배하였다. 1). 심리학에서의 세계관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1939)와 칼 융(Karl G. Jung,1875-1961)의 심리치료와 삶의 철학을 배치했다. 2).사회학에서의 세계관에서는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1893-1947 ), 피터 버거(Peter L. Berger,1929-2017)와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 mann,1927-2016)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Karl Mark,1818-1883)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 3). 문화인류학에서의 세계관에서는 마이클 키어니(Michael Kearney)와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 field, 1897-1958)다.

#### 4. 몸통(체계적 구성)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동체는 3장의 "세계관의 문헌학적인 역사" 즉 "세계관에 관한 용어연구"로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4, 5, 6장으로 연결이 된다. 즉 세계관의 개념역사가 연결이 되어오고 있다. 여기에서 분류상의 문제가 생겨서 비판적인 입장을 다음단계에서 취급하고자 한다.

#### 5. 꼬리(Eagle's Tail)

독수리의 꼬리는 사고의 방향타로서 균형을 잡아준다. 비행기에서도 꼬리날개(Stabilizer)을 안정판이라고 하여 비행기의 진행방향을 안정시켜준다. 본서에서도 9장의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10장의 "철학적 고찰"은 11장의 결론적 고찰과 함께 Naugle의 세계관의 진행과 방향을 안전하게 날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세계관의 특징과 성격을 독수리의 꼬리에서 나타내고 있다.

본서의 10장에서는 9장의 기독교 "세계관의 본체"에 대한 색깔을 이성의 자율성을 추체로 하여, 역사를 서사로 하고,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인식론적 그림을 기호로 하고 있다. Naugle은 9장의 세계관 본체를 "세계관의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의 세계관"으로 하여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1).객관성의 문제 2).주관성의 문제 3).죄와 영적 전쟁의 문제 4).은총과 구속의 문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II. 구성의 비판(선험적 주체사상)

#### 1. 본서에 대한 해명

본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저자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역사 구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한 핵심적인 철학자의 이해와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한 기초적인 인물에 대한 고찰이다. 그래서 핵심 되는 영역의 양대 사상가의 철학 및 세계관의 그림을 도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뉴턴과 I. Kant가 중심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은 근대 형이상학이 데카르트로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존재를 인간 주체의 권력에 종속시킨 "주체성의 철학"을 비판한 마르틴 하이데거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한다. 강영안 교수도 그의 책 "주체는 죽었는가"에서 밝힌 대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한 미셸 푸코를 위시한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구조 언어학자 소쉬르, 야콥슨, 뵘베니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실상은 하이데거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은 하이데거의 시대비판과 형이상학비판에서 시작하여 니체를 통해 현대를 지양하려는 철학적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것이다.(강영안: "타인의 얼굴"(2005),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2009), "라이프니츠와 형이상학"(2013), 기타) 필자는 철학사를 이해 할 때 독일 뷔르츠브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로 학위를 받은 이서규의 "하이데거 철학"에서 밝힌 대로 제1기를 고대철학에서 중세철학으로, 그리고 제2기를 근대철학에서 현대철학 구분한다. 그 이유는 고대철학의 휴머니즘 주체사상과 근대철학의 계몽

주의 사상이 고대철학의 양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며 계몽주의가 고대철학으로의 회기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철학과 근대철학의 차이점은 근대철학이 고대철학에 없는 특유하게 발전된 “선험적 주체”사상과 유클리드 수학의 기하학적인 “표상구조”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참고: 프리드리히 셸링의 “초월적 관념론 체계”, 니콜라이 하르트만: “독일 관념론”)

강영안 교수의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의 제 8장 “표상적 사유를 넘어 사유 안에서 방향 찾기”에서 플라톤과 칸트의 사유체계에 대하여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칸트의 주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론”에 대한 내용을 기제 하였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감성 세계가 그렇게 다양한 장애물을 놓는다는 이유로 감성세계를 떠나 이념의 날개를 타고 피안의 세계로, 곧 순수지성의 허공으로 감히 날아 들어갔다.”라고 해설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이는 곧 고대철학과 근대철학의 구조적 동일성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므로 필자는 근대철학과 현대철학의 분기점에 Martin Heidegger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왜냐 하면 철학의 체계 즉 철학의 구조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대로 “철학은 명제이고 명제는 그림이다. 고로 철학은 그림”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의 그림이 다르며 근대철학을 비판하고 현대 프랑크 철학을 이해하려면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I. Kant의 세계관 도식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감성론 직관원리에서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의 경험, 지각, 판단의 전제가 되며,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험적 인식이다.”라고 하였으며, 절대공간에는 에테르와 함께 영적인 물질인 신의 의지가 구현되고,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존재하며, 외부의 어떤 기준에도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는 유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의 철학의 기초적인 설정을 구성하였다.

노골은 9장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계관”에서 일반적인 세계관의 통상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실재에 대한 한사람의 해석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밝히면서 (1). 객관성의 문제 (2). 주관성의 문제 (3). 죄와 영적인 문제. (4).은총과 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세계관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 1). 철학적 세계관 도형

근대철학의 대표성을 가진 I. Kant의 선험적 주체철학의 도형과 여기에 기초를 둔 기독교 철학자 H. Dooyeweerd “우주 법이념의 철학”의 도형을 제시해 본다.

<1>. I. Kant의 선험적 도형. <2>. H. Dooyeweerd 우주적 도형.

<2>. 기독교 세계관의 표상구조.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의 선험적 방법론 2장에서 이성의 모든 관심을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희망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논리적 강의 편람에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신의 철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따라서 그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선험적 주체사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초월철학의 그림을 그렸다.

도형에서 1번은 선험적 주체로서의 상상력과 도식론을 통하여 “표상적 사유”(ein

vorstellendes Denken)를 하는 사유의 주체, 곧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주체”(self-defining subject)를 말한다. 2번은 표상구조로서 순수이성비판이다. 3번은 2원적인 대상적 실체의 상층부로서 실천이성비판이다. 4번은 대상적 실체의 하층부로서 판단력비판이다. 근대 독일철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도식 활동”(Schematismus)으로서의 도식론(Schema)이다.

이 도식론은 개념체계가 현실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며 현상으로서 현실이 가능한 경험의 대상으로 체계화 되고 규정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상징화(Symbolisierung)을 통한 도식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의 도덕철학, 판단력비판의 예술철학,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종교철학에 깊숙이 내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 2). 도형의 해설

### (1). 주체성(Subjektivität)

칸트 세계관의 출발점은 “선험적 주체성”이다. 이 선험적 주체성은 근대철학의 핵심적 사유의 설정으로서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0-1650 )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에서 시작 된 것이다. 중세철학과 현대철학의 구분을 가쳐다 주는 핵심적인 사유의 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이성”이다.(강영안의 “주체는 죽었는가”(1996), 한자경의 “칸트: 철학에의 초대(2006), 문성학의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2007),기타 참고)

이 주체성은 대상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식, 범주의 도식화를 통해서 구성되어지고 그 대상성의 궁극적인 조건으로서의 “나”(Ich)를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경험적 자아가 아니라 “반성적인 자아” (reflexio/reflector)로서 내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타자 화하고 동시에 객관화 한다.

나를 객관화하는 선험적 통각은 초월적 주체로서 직관의 보편적인 소여의 시간의 제제를 받지 않고 시간을 형성하는 활동성으로서 주관-자아를 말한다. 그래서 칸트는 “통각 주체인 자아, 선험적 표상으로서의 논리적 자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연적 성질로 존재하는 가를 알아낸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론적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자아는 단순하고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공허한 표상(자아) 이지만, “나는 존재 한다”로서 순수자아로서 다른 요소로 분해되고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백승훈의 “칸트와 독일관념론의 자아의식이론”(2013). 참고)

여기에서 자기인식과 자기의식은 차별이 되는데 자기인식은 이론적 인식을 위해 사고의 자발적 개념을 위해 직관이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객관화 될 수 없고 단지 순수행위로만 발생한다면 단지 스스로 의식 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자기 자신의 의식은 자기 자신의 인식과 다르다”고 하여 자기의식은 자발성의 활동성을 가진다.

탁월한 칸트 해석자 회페(O. Hoffe)는 자기의식의 선험적 통일, 즉 선험적 통각(transzendente Apperzeption)은 의식 일반의 주체이며 모든 의식과 자기의식에서 하나이면서 같다고 하였다. 선험적 통각(Cogito)은 “나는 생각한다”(Ich denke)라는 형식으로 현상의 근원적인 종합통일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작용이다. 곧 일종의 자기의식이다.

그러므로 초월적 통각인 자아는 스스로 시간화하여 시간형식인 지평을 형성하고 자체로 하여금 순수 자아의 유일한 본성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칸트는 나의 자발성에 대한 의식을 “지적표상”이라고 하여 내적으로 직관된 객관-자아가 아니라, 주관-자아라고 하여 본래적인 자아라고 하였다. 이것이 오성 가능성의 근거로서 말하지 못하는 짐승과 구별되고 스스

로 만들어 낸 표상과 개념을 넘어 무한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백종현의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2000).참고)

칸트는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라”(Sapere Aude)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종래의 철학을 이성의 법정에 세우면서 어떠한 외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오직 이성의 법정에서 심판하려 하여 인간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순수한 통각으로서 이성의 능력의 선형적 주체성이다. 그러나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스 가다머(H.-G. Gadamer)는 계몽주의가 세운 절대적인 이성도 역시 배제하려는 선입견(선판단)을 내제하고 있다고 하였다.(미셸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 작은 철학총서의 “주체” 참고)

## (2). 표상구조(Representative Struktur)

인식주관은 인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존재)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대뇌피질까지 전달되어 대상의 상을 그려서 만들어 진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인 사물자체의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물의 표상 즉 주관적인 표상이다. 이는 “나는 표상된 것을 표상 한다”(ego cogito cogitatum)라는 원리에 따라 주관적인 표상은 거짓 일 수 있어서 진리란 “표상과 대상의 일치”로 간주하며 표상은 인식의 영역에, 대상은 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한자경의 “칸트의 초월철학”(1992), 강영안의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2009) 기타참고)

근대철학의 최고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칸트에게 있어서 “표상구조”는 바로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으로서 선형적 원리론의 선형적 감성론의 시간과 공간을 감각적 잡다를 감성의 직관 형식인 시간-공간의 형식을 통해 받아들이고, 선형적 분석론의 오성의 범주를 오성의 사유형식인 범주들로 종합하여 건축적인 구조로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문성학의 “칸트철학의 인간학적 비밀”(1997). 참고)

이러한 표상적 사유의 내적 갈등을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감성의 수용성과 지성의 자발성의 긴장관계를 “감성적 세계”(mundus sensibilis)와 “지성적 세계”(mundus intelligibilis)의 투쟁으로서 묘사하였다. 이 두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은 자연의 타율성과 자유의 자율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통각이라는 관점의 변화로 인간은 자신을 지성적 세계시민으로, 또한 감성적 세계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인식구조에 있어서 구상력(Einbildungskraft)은 인간의 선형적이며 형식적인 능력을 말할 뿐 아니라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의 초판에서는 “직관(Anschauung)에서의 각지의 종합”(Apprehension), “구상력에서의 재생의 종합”(reproduction), “개념에서의 재인의 종합”(Rekognition)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칸트철학 인식의 3가지 원천으로서 감성(Sinnlichkeit)과 오성(Verstand)과 구상력으로 선형적 구상력은 감성과 오성의 매개로서 선형적 통각으로 하이데거는 시간성에서 파악하여 각지는 현재, 재생은 과거, 재인은 미래로 해석하여 기능적 종합이라고 하였다.(김대식의 “칸트철학과 타자인식의 해석학”(2013 참고)

이러한 도식의 기반에는 아이작 뉴턴(Sir Issac Newton, 1643-1727)의 세계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은 보편타당한 절대적 학문으로 인간의 주관적 표상 영역과 존재 자체에 대하여 타당한 객관적인 진리라고 간주한다. 수학의 절대화는 뉴턴 물리학의 절대시간과 절대 공간의 개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초월철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자경)

### (3). 2층 구조로 실체: 현상체과 물자체

(Phenomenon und Dinge an sich; Noumenon)

정원배교수는 "순수이성비판"(1990, 삼성출판)의 선험적 분석론에서 객체를 "현상체와 가상체"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최재희의 순수이성비판(1972, 박영사)을 그대로 따라 번역하였다. 2006년에 나온 백종현의 번역에서는 "현상체와 예지체"로 하고, 2016년에 출판된 순수이성비판(동서문화사) 정명오는 "현상체와 가상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대상체로서의 객체의 역사는 고대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이데아와 현상계"로서 "형상과 질료"의 세계였으며,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도식에서 "은총과 자연"이었다. 그리고 근대철학의 임마누엘 칸트(I. Kant, 1724-1804)에서는 "자유와 자연"으로 구조의 양식에 대한 사유의 변천을 가져왔다. 결국 필자의 본서에 대한 비판적 핵심은 선험적 주체로서 초월철학이라는 근대철학의 핵심적인 사유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그 구조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계관이 동일한 도식으로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구조보다는 인간의 자율적 이성이 주체가 되어 "인식론적인 체계"를 구성한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진술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근대철학의 표상으로서의 안경이라면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혹은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형식상의 자율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2장20절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도식으로 다음 장에 제시하고 한다.

### III. 대안(양방향 구속사)

근대에서 현대의 변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1905년의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의 "특수 상대성이론" 과 1915년의 중력을 상대론적으로 다루는 "일반 상대성이론"이라는 두 상대성이론(theory of relativity)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서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온 모든 이론인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즉 인식에 대한 사고의 체계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학뿐 아니라 철학에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1920/21년 겨울학기에 강의한 "종교 현상학 입문"을 "종교적 삶의 현상학"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제1부에는 방법론적 입문: 철학, 현사실성의 삶의 경험, 종교현상학. 제2부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체적인 종교현상학 현상학적 해명을 다루고 있다. 특히 2부에서 갈라디아 주석적인 현상학적 해석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현상학적 해명으로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읽을 수 있다. 이는 하이데거철학 "사유의 시원"을 말하는 것이다.

신학에서도 변환을 천명하였는데 "개혁주의 세계"의 좌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칼 바르트는 1919년의 제1판과 1921년 제2판의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여 세계 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세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인 슈라이어마허 (F. Schleiermacher, 1768-1834), 리츨(A. Ritschl, 1822-1889), 헤르만(W. Herrmann, 1846-1922)을 종교적인 개인주의와 역사적인 상대주의 주장하는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를 비판하였다.

1932년도에 시작한 "교회 교의학"(13권)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철학적 인간학적 기초와 해명으로 출판된 "로마서 주석"에서 보여준 2층으로 구성된 선험적인 사유 방식에서 탈피하고, 신학이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신학으로 전환 해 버린것이다. 이로서 변증법적인 체계인 시간-영원의 종말론, 변증법적인-수직적인 종말론을 비판하고 계시적 종말론 성경적-수평적인 종말론의 체계인 "그리스도론적 일원론"로 전환하였다.

개혁주의 우파인 "클라스 스킬더"(Klass Schilder, 1890-1952)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us en Kultuur, 1947)전통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계통을 따르지만 그는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의 전통적인 신론 중심한 신앙의 체계를 추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역시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칸트와 후설의 방법론적인 "우주법 이념의 철학" 체계를 반대하였다.

그는 캄뵌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1933년에 독일 에르랑엔에 있는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에서 Herrigel 교수에게 철학을 공부하고 쾨렌 키에르케고어의 역설에 대한 논문 "파라독스 개념의 역사"(Zur Begriffsgeschichte des "Paradoxon")로 박사학위를 받고 "수난 받는 그리스도"(Christus in Zij Lijden: Christ in his Suffering), Christ on Trial, Christ Crucified란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F.W. Grosheider 와 S. Grijdanus 같은 개혁주의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설교와 계시 역사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G.C. Berkouwer의 지도 아래 스킬더는 목사와 교수에서 면직 되었다.

#### 1. 대안적 도식

우리는 비판이라는 항목에서 칸트와 도이벨트의 도식에서 밝혀진 구조적 출발점이 인간의 선형적 주체로서 "이성"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읽어 보았다. 인간의 선형적 주체사유에서 나온 기독교 세계관의 구도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도 흐르는 것 즉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시간이 주체로 등장하는 표상이다, 이 선형적 시간의 주체위에 건설된 세계관이다.

도이벨트사유의 핵심적 구조에서 시간의 표상이 세계관이며 표상으로서의 안경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다. 이 명제들은 각각의 영역주권을 가진 개체들이며 각자의 영역이 한계상황이다. 이 한계상황의 초월성이 시간인데 이 시간의 개념이 뉴턴의 세계관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표상구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블랙 홀"(Black Hole)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삼켜 버린다. 흐르는 것으로의 시간이 본질이 아니다. Jesus Christ는 "나는 Alpha와 Omega라고 하시면서 4차원적 시공간을 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삶의 흔적으로서 너희가 시간이다." 라고 하신다.(그리스도와 문화)

<1>, M. Heidegger의 도형. <2>. K. Schilder의 도형

<3>. 양방향 구속사의 도형

특히 마르틴 하이데거는 1920/21의 "종교적 삶의 현상학"의 제2부 "데살로니가 전서의 현상학적 해명" 이라는 해석학적 석의와 해설에서 초대교회의 신앙 양태로서의 구조를 구속사적 도식으로 그려주고 있다.(114 page)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확장되는 도식인데 독일의 스트라스부르그 출생 스위스의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 1902-1999)의 "그리스도와 시간"(Christus und die Zeit, 1946)과 "구속사"(Salvation in History, 1944)의 도식 보다 20년 이상 앞섰다

그리고 1928년에 자기 스승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 의 후임으로 프라



이부르크의 철학교수로 가기 전, 마르부르크에서 가르친 강의 내용을 정리한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이란 책을 저술하였다. 그 책의 서론 “전재의 논리학 개념에 대하여”에서 논리학(Logik)이 로고스(Logos)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존재를 시원적 입장에서 해석 하였다. 그리고 규정하는 것을 존재자의 존재라고 하고서 도식으로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나 1927년도에 하이데거는 급히 제출해야하는 논문으로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을 발표하고 후에 책으로 출판하였다. 종교현상학이 세계관 도식의 형식적인 면이라고 하면 존재와 시간에서는 구조상 형식의 내용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 학순 교수는 “시간의 지평에서 존재를 논 한다”(2016년)라고 하는 해석학적 책을 통하여 하이데거 사상을 이해하도록 할 뿐 아니라 세계관적 도식이해에 아주 적절하게 제시 해주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제1편에는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분석”에서 현존재의 근본틀로서 “세계-내-존재”를 설정하고 세계의 세계성을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현존재와 시간성”에서 세계에 대한 설정의 중심점을 중심해서 현존재의 삶의 현상을 시간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간성과 일상성, 시간성과역사성, 시간성과 시간 내재성을 다룬다.

시간의 내재성을 해석하면서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Physik)에서 시간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정의 즉 “시간이란 곧 이전과 이후의 지평에서 만나게 되는 운동에서 헤아려 진다.”( 헬라어 )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존론적-존재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내용은 세계-내-존재의 세계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시간성으로 작용한다. (존재와 시간)

그리고 하이데거는 세계시간에게 “영혼”과 “정신”과의 탁월한 연관을 제공하는데 두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일 영혼이외에, 영혼의 마음 이외에, 헤아리는 본성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면, 즉 영혼이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헬라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고 내게는 시간이 연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의 연장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의 연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inde mihi visum est, nihil esse aliud tempus quam distentionem; sed cuius rei nescio; et mirum si non ipsius animi)” 이렇듯 현존재를 하이데거는 시간성으로 해석한다. 곧 “존재와 시간”은 요한복음의 철학적 해석과 같은 입장이다.(존재와 시간)

## 2. 도식의 해설

### 1). 절대적 주체(Alpha and Omega=Almega)

근대철학이후 현대철학에서도 인간은 이제 보편적 주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신체적, 감성적인 개인으로 규정된다. 즉 주체는 더 이상 존재를 떠받치고 존재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편적 주체가 아니라 욕구와 욕망을 가진 신체적 주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개체(Individuum)”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개인(Individu)”에서 출발한다. 즉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인 사유를 통한 세상을 해석하는 “사유하는 자아”가 아니라 실재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실존하는 자아”로서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 개체이든 개인이던 사유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인간이 모든 사건의 주체(subject)임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존하는 책임적인 존재자다.

(1). 신학적 입장에서는 Jesus Christ가 구원역사의 1. 중심점 2. 구심점 3. 출발점으로서 성경구성의 중심으로서 구속사의 핵심이 된다.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이해의 관점에서 B.C와 A.D의 해석이며, 구심점이란 과학적인 관점에서 4차원의 세계이고, 출발점은 양방향적인 구속사의 시간성의 개념이다. 여기에 속학 학자들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와 후계자들, 그리고 본회퍼의 "행위와 존재"(Akt und Sein)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의 "그리스도와 시간"(Christ and Time:1950)과 "구원사"(Salvation in history:1967)와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의 "구속사적 설교원리", "구약의 그리스도: 하나의 현대적 해석 방법", "창세기 프리칭 예수", 그리고 최근의 콘스탄틴 캠펀(C. R. Campbell)의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기타.

### (2). 철학의 지평융합

철학의 입장에서 절대적 주체는 하이데거 철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논리적 시원적 출발점으로서 1928년도의 여름학기에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강의인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존재와 시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한스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절대적 주체는 선 이해를 전제로 하는 영향사로서 즉 해석을 뚫고 들어오는 전적타자로서 지평융합이다. 즉 주관의 현재지평과 객관의 역사지평이 결합되는 지평(Horizont)의 융합(Verschmelzung)이나, 영향사적 의식(wirkungsgechichtliches Bewusstsein) 안에서 성취되는 "지평융합" Horizontverschmelzung)인 것이다.

### (3). 과학의 특이점(Singularity)

1916년에 슈바르츠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을 통해 "빛마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중력 공간"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1939년 오펜하이머도 매우 무거운 별이 수축하여 중성자 덩어리가 되고, 이 중성자별은 수축을 계속하여 마침내 한 점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 영국의 스티븐 호킹(Stephen W. Hawking, 1942-2018) 박사는 우주공간의 11차원까지 계산을 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INTERSTELLA의 영화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주창한 블랙홀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모든 것을 뱉어내는 화이트홀이 있으며, 두 홀을 연결하는 "웜 홀"(WORM HOIE)있다고 하였으며, 그 웜 홀의 중간지점에 특이점(SINGULARITY)이 있다고 하였다.

블랙홀의 특징은 블랙홀의 근체의 공간을 엄청난 중력자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 개념"이 아니라 휘어진 "리만의 공간개념"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초강력의 중력으로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 것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볼록 렌즈가 놓여진 것과 같은 중력 렌즈현상을 일으켜 빛을 구부러지게 함으로서 은하의 허상을 만들어 낸다.

대폭발인 빅방(Big Bang)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138억년, 운석의 방사선 측정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45억년 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과학의 세계는 열려있어서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세계가 창조 된 후에 최초로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기원전 B. C. 1500년에서부터 A. D. 1세기 사도요한의 요한 계시록 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절대계시로서 3차원에서 11차원 즉 무차원의 이르기 까지 세계 해석의 표준이 된다.

## 2). 지평의 구조

I. Kant는 “논리학강의”에서 “순수이성비판”의 3가지 질문과 마지막 질문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철학의 마당”을 연개해서 “인식 전체의 양”, 주체의 능력과 목적의 합치성을 지평으로 사유한다. 인간으로 인식 되지 않는 것은 지평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학문적인 입장에서 인식론적인 한계로서 논리적 지평, 실천적 지평, 미적 지평을 말한다. 즉 인간의 이성능력을 통한 한계점을 말함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중세적 의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로서 인간자신이 바로 지평이라는 것을 벗어났다.

이제는 인간의 지평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적 능력으로 만들어 가는 한계점으로서 칸트는 한편으로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한계를 설정하여 초월 철학적으로 지평구성을 한다. 1. 인간 지평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시간과 공간이다. 인간의 지평공간성과 시간성 안에서 지식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된다. 2. 지성 개념의 지평으로 형이상학적 연역과 초월적 연역을 종합 구성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 한다. 결국 자율적 주체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시공간적 지평과 오성적 지평을 통일하는 도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초월적 이념은 표상적 사유방식에 추월해서 대상에 따라서 지평을 넘어 초월적(Transzendental), 내재적(immanent) 사유를 하게 한다. 지평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선형적 주체의 이념은 지평 안으로는 내재적 의미를 갖지만, 지평 밖으로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세계관의 기반을 이루는 선형적인 주체적 이념으로서의 지평은 현대 철학의 전환점을 통해서 규명을 해보면 상하의 유비적인 관계 해석으로서의 지평, 즉 헤겔적 해석으로서의 슈라이어마하의 “지평 확대”에 대한 수사학적 해석학의 지평이해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구성하는 해석학적 “양방향 지평의 구속사”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최 신한: 지평 확대의 철학”(Philosophie der Horizonterweiterung, 2009)

이제 성경에서 밝혀주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세계관의 도식을 시원적인 중심을 설정하고서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융합점을 중심하여 양 방향적 지평구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 (1). 구약지평(미래 지향적 방향성)

히브리서 구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약지평”에 대한 해석학적 토대로서 절대적인 계사로서 닦아 오는 것이다. 서론 1:1-4, 제1부 1:5-10;18, 제2부 10:19-12:29, 결론 13:1-25이다. 제1부의 (1). 1:5-4:13은 대제사장의 본성, (2). 4:14-7:28 까지는 대제사장의 성품, (3). 8:1-10:18 까지는 대제사장의 직무로서의 제물이다. 제2부는 대제사장의 구속적용으로서 “영단번”(ephapax)을 기점으로 하는 구약역사의 “지평구조”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기독교 형이상학자인 사도요한이 제시하는 요한복음 19:30을 관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경륜적삼위일체의 협의적인 논의에서 시작된 자신의 담당 영역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란 말씀으로 그의 우주적인 지평구조의 구심점을 설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다 이루었다”의 본문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이”(tetelestai)로서 인간의 죄 값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지불완료와 맡겨진 사명의 완결로서 우주적인 구속작품이 완결 되었다는 의미의 3인칭 단수 수동태 현재완료형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 해보면 1:1-4은 서론, 1:4-7은 족장 이전시대, 11:8-22은 족장시대, 11:23-31은 족장 이후시대, 11: 32-40은 결론이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중심한 구약시대를 구약 지평구조로서 해석학적으로 설정하여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특히 11장에서 제시하는 구속사의 지평구조를 저자는 선형적인 도식으로 제시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계시로서 기록 하였다고 한다.(히 4:12)

본문에서 믿음(By faith)이란 도구적 여격, 혹은 원인적 여격으로 40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평구조의 특징은 (1).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단번(once for all)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구속사의 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오직 믿음은 각 시대나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3)믿음은 인간의 주체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적 실존에 대한 사건적 신뢰라는 것이다. (4). 시간은 범주가 아니라 현존재인 인간 삶의 현상의 사태라는 것이다.(하이데거의 반-시간성)

#### (2). 신약지평(과거 지향적 방향성)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서 하이데거는 갈라디아서의 3:6-14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에서”(헬라어)를 “믿음은 들음에서”(헬라어)로 대립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의 “로기제스타이: 고려하다. 말하다”(헬라어)제시하고 언어 철학적 의미에서 믿음은 듣고 고백하는 삶의 현상을 주장하면서 바울은 현존재에 대한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를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91page)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파루시아”(헬라어)를 “기독교의 종교성은 시간성이다”라는 관점에서 신자는 파루시아의 날은 “주의 날”로서 현사실적 삶의 경험을 살도록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목적 소유격으로서 해석하고 현사실적 삶을 사는 신자는 “기다림: 아나메네인”(헬라어)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철학자이기보다는 신학자다.” 라고 주장 하듯이 “종교적 삶의 현상학”은 전문 신학자의 수준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해석 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예수그리스도를 세계지평에 설정하고 역사적 시간의 구도를 “이미 와 아직”(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구도 속에서 현사실적인 삶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Dasein”(현존재)라고 하였다.

#### 3). Dasein(실존적 인간)

시편 90편4절에 “주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更點)과 같나이다.” 그리고 뱌후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이데거는 사도행전 내용의 “시원적 관점”에서 고린도교회와 갈라디아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현사실적인 삶을 사는 Dasein으로 이해하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만들었다.

#### 4). 지향성(지평융합점)

해석학적인 지평은 끊임없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삶”이라는 독특한 지평을 만들어 낸다. 삶이라는 실존의 공동적인 지반으로서 역사적인 지평은 닫힌 지평이 아니라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열려있다. 그러하기에 에머리히 코레트(E. Coreth)는 지평융합을 타자의 이해를 통해서 제한된 지평을 확장한다고 하였다.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삶의 세계라는 공통적인 기반이 해석학적 전제임을 주장하면서 타자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존재이며, 타자의 이해를 통하여 나는 비로소 공통된 삶의 세계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자아는 공유된 세계에 참여함으로 이미 이해, 즉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식)

이러한 지평은 보편성을 가지며 자기로부터 멀리 그리고 멀리서부터 자기상황으로 돌아오는 반성적인 지평으로서 “초월적인 지평” 이기에 과거로부터 소외나 미래로부터의 불안이 아니라 현재의 타자와의 관계로서 지평융합의 구속이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음”의 의미의 형식을 가지지만 체험된 것으로서의 항상 “자기체험”(das selbsterlebtes)으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재귀적인 체험이다. 그러하기에 “체험으로서의 해석학”이라고도 한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무한자로 용인된 것이다.

현존재의 존재방식은 자기를 넘어 타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타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 조건은 현존재의 시간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기초월의 가능성은 주체의 시간성으로서 현존재의 “탈자적 지평” 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김대식; 칸트철학과 타자인식의 해석학)

양방향구속사의 세계관은 오직성경에 기초를 한 사도요한의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예수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세계이해다. 사도요한은 기록계시가 문을 닫을 때에 사명을 가진 마지막 사도로서 공관복음을 통합을 하여 하나의 초점, 즉 중심점 구심점 출발점으로서 복음서를 완성하였으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전우주적인 세계역사 곧 구속사의 지평을 계시해주었으며, 3부작인 서신서를 통하여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현사실적인 현존재의 삶에 대한 지침서를 계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이 계시에 근거해서 (1). 신학적으로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교인 깜번 신학교 클래스 스킬드(Klass Schilder. 1890-1952)는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여 “기독교와 문화”(Christus en Cultuur )란 책을 저술하였으며,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 역시 “행위와 존재”(Akt und Sein)와 기타 7가지의 책을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칼 바르트 역시 기독교론을 중심하여 “교회 교의학” 12권을 집필하였다.

(2). 철학적으로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의 근거들”(Metaphysische Anfangsgrunder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과 레비나스(Emmanuel Levinas,1906-1995)의 “전체성과 무한”(Totalite et infini)과 “신, 죽음 그리고 시간”(Dieu, la Mort et le Temps), “타자성과 무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이론”등에서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한스 가다마(Hans-Georg Gadamer)의 “진리와 방법” (Wahrheit und Methode)에서도 지평구조위에 그의 철학과 세계관을 설정하고 있다.

### 결론

최근에 키르케고르의 책2권이 번역 출판되었다. 한권은 토니 김(Tony Kim) 의 “키르케고르: 신앙의 합리성”(Kierkegaard: Reasonableness of Faith. 2018)으로서 네덜란드 자유대학 조직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 한 것과 그리고 메럴드 웨스트팔(Merold Westphal)의 “키르케고르: 신앙의 개념”(Kierkegaard: Concept od Faith. 2018)이다

토니 김은 개신교의 계통의 학자로서 I. Kant의 선형적 철학구조 입장에서 책을 저술하고, 후자인 웨스트팔은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구조 입장에서 키르케고르를 연구한 책으로, 중요한 것은 키르케고르의 그리스도론을 전자는 표상구조에서, 후자는 상층부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근대철학의 지평 속에서 탐구한 책으로 갈등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덴마크의 철학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신전통주의자 카를 바르트(Karl Barth)는 "교회 교의학"(Die Kirchliche Dogmatik)에서,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행위와 존재"(Akt und Sein)에서 각각 구조적으로 사유의 틀을 기독교적 지평구조로 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론들의 중심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특수와 일반의 상대성이론"의 시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클라스 스킨더의 "그리스도와 문화"에서는 뉴턴의 세계관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으로 설정된 세계관으로, 리차드 니버(Richard Nieber, 1894-1962)의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그리고 리차드 니버의 책을 조명한 카슨(D.A. Carson)의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Christ and Culture Revisited) 나, 폴 툴리히(Paul Tillich, 1886-1965)가 1959년도에 출판한 "문화의 신학"(Theology and Culture)도, 또한 웨스트민스트의 신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uren)의 "자연법과 두 나라"(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와 "언약과 자연법"(Divine Covenants and Moral Order)과도 차원이 다르다. 외나하면 클라스 스킨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원적 구심점과 4차원적인 양방향성의 신앙의 실존이 현사적인 삶의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친구인 H. Dooyeweerd와 나누어졌으며 값싼 신학교와 자유대학 사이의 세계관적인 구조적 갈등이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점에서 오늘의 여러 현상을 보면 성경해석학의 교제로 1980년에 출판된 앤서니 티슬턴(Anthony Thiselton)의 유명한 "두 지평"(The Two Horizons)과 1997 년도에 새롭게 보충하여 출판된 "해석의 새로운 지평 "(New Horizons in Hermeneutics)에서도 텍스트 자체와 독자반응이론이란 화행론과 독자 상호이론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구성된 책은 세계관의 충돌을 가져오는 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원적인 구심점을 상실한 해석학 즉 그리스도 주체사상을 중심한 구속사적인 "하나의 지평"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칼빈대학의 제임스 스미스(James K. Smith)는 그의 책 "급진 전통주의 신학"(Introducing Radical Orthodoxy)에서 근대철학의 인식론적인 구조를 현대의 존재론적으로 변환하여 예배와 세계관과 문화적 형성을 문화적 예전(cultural liturgy)으로 현상학적 변천을 주장하여 다른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 방향의 지평으로서의 현존재가 오직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의 본질이며 그 목표를 향한 지향성으로서 초월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의 형태)